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 만들겠다” 미래비전 2050 주민참여연구단 모집

전춘성 진안군수, 기자 간담회 가져... 지역화폐·기본서비스 연계 '진안형 순환경제' 추진

전춘성 진안군수는 15일 오전 10시30분 진안군청 기자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안형 순환경제 모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향후 추진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진안군은 지난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진안군은 전국 44개 군이 참여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군수는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사업 유치를 넘어 진안군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오랜 기간 지역소멸 위기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감내해 온 군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라 한마을으로 응원해 주신 2만4,000여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



전춘성 진안군수는 15일 오전 10시30분 진안군청 기자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며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전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안형 순환경제 모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지역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진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이 지향하는 미래는 단순히 기본소득만을 지원하는 사회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으며, 어른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라며 “돌봄·의료·교통 등 군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기본서비스를 함께 강화해 진안형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7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시작해 8월부터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며 지급 규모는 1인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26일까지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

무주군이 '무주군 미래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실행력을 높이고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연구단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연구단은 군민이 직접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희망지는 무주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무주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안내를 참고해 전자우편 또는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구단은 총 4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분과는 도시·교통·환경·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1분과, 농축수산·산업·경제 분야의 2분과,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의 3분과, 보건·복지·교육 분야의 4분과로 운영된다.

신청된 연구단은 오는 12월까지 총 3회의 정기회의와 1회의 주민공청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발전 비전과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별·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래 성장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무주군 미래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받고 검토하며 분과별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3월부터 '무주군 미래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끌 체계적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와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반영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어 무주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주민 건강 증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

장수군은 지난 11일 장수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농촌지역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 진료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과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며, 총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수읍과 장계면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장수농협에서 먼저 진행된 이번 사



업에는 많은 농업인과 주민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장계농협에서는 이달 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전문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검안 및 돋보기 지원, 근골격계 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운영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서 '꽃중년 한달살기'로 희망찬 출발

중장년층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진안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46세 이상 중장년층 도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꽃중년 한달살기'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 생활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의 현실적인 정착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단기(5일)와 중기(4주)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단기 과정은 20명의 참가자가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숙박하며 농업현장을 살펴보고 농촌 생활 전

반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중기(4주) 과정은 10명의 참가자가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농업·임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지역민과 1:1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인착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프로그램 마지막 주에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개인별 정착 계획을 수립하여 막연한 귀농귀촌을 실현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

무주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7억9851만원을 확보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시설에는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 LED 조명 교체 등이 포함된다.

무주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지역 노후 경로당 23곳을 지원 대상으로 확보했다.

군은 총사업비 25억6659만원을 투입해 대상 경로당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이야기' 책자 배포

장수군은 군민들이 지방세 제도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이야기' 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지방세 제도와 납부 방법, 감면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등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지방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책자에는 올해 달라진 지방세 주요 제도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감면 혜택이 수록됐다.

또한 지방세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처리 절차를 안내해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행정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책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실, 유관기관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11회 진안예찬 학생 백일장대회 성료

진안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예찬 진안지회가 주관한 '제11회 진안예찬 학생 백일장대회'가 지난 13일 진안 전문문화회관에서 관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쳤다.

이번 대회는 진안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글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진안 문화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관내 초·중학생 총 52명은 '진안의 자연과 사람, 문화'를 주제로 자마의 시선과 감성을 원고지에 담아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번 대회의 영예의 대상(백일장 장원)은 △초등부 조림초등학교 김연수 학생, △중등부 진안여자중학교 육하람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양파 수확 현장 찾아 농가 격려

장수군은 지난 12일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를 맞아 산서면 양파 재배 농가를 방문해 수확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훈식 군수는 양파 수확 현장을 둘러보며 작황과 생산 여건을 살펴보고 농업인들과 만나 재배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유통 현황, 품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